

멈춰버린 합법 경마, 활개치는 불법 배팅

해외 공식사이트 배팅도 모두 불법 신고 챗봇 등 불법경마 대응에 만전

지난해부터 일본, 호주 등 해외경주의 불법 유튜브 중계와 온라인 배팅 등이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경마 팬들의 각별한 주의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배팅을 제공하거나 참여한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불법행위에 처벌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합법 경마가 주춤한 빈자리를 ICT 기술을 등에 업은 불법 경마가 국경을 넘나들며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불법경마 단속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경마의 총매출은 6조9000억 원으로 이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6조 200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마사회에서 단속해 폐쇄한 불법 배팅 사이트가 7505건에 이른다. 2019년 대비 39%, 신고 건수는 2648건으로 전년 대비 95%나 증가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경마가 중단된 틈을 노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정상적으로 열리는 일본 경마에 배팅하는 불법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다.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은 일본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하

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경마에 배팅할 수 있다며 홍보를 펼치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경마에 배팅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을 비롯해 형법 등 도박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된다. 불법 도박업자가 만든 사실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라쿠텐 경마' 등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마사이트를 이용해 국내에서 배팅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조항과 제51조 벌칙에 따르면 외국에서 개최하는 경마 경주에 마권을 발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마권구매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불법경마 원천 차

단을 위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올해는 현재 상황, 채증 등 분산된 시스템을 '불법 단속 통합센터'로 통합해 CCTV 통합관제 및 모니터링, 현장 단속 관리 등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이와함께 불법경마 신고 전용 챗봇 도입, 불법 사이트 단속 자동화 체계 구축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 불법 경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해외 불법 경마 사이트들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ICT 기술 뒤에 숨어 단속만으로는 불법 온라인 배팅 사이트 차단, 근절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말 원격의료 시대 열린다

마사회, 말 의료 취약지역 대상 시범사업 동물병원 협력·전문인력 양성 교육 앞장



원격으로 말을 진료 중인 한국마사회 수의사.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김우남)는 ICT기술을 활용한 말 의료분야 혁신을 위해 디지털 말 원격의료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비대면 시스템 도입과 전화처방 등 원격의료 도입

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수의 분야에서 원격의료는 수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서 발생한 환축(병든 가축) 질병을 관리하고 진단, 치료 등 의뢰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이후 반려동물 온라인 진료 서비스 등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9년 말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말 사육 두수는 약 2만7000두이며 말 전문 병원은 약 40개소로 추정된다. 이 중 대부분은 말 관련 사업이 집중된 제주에 있다. 반대로 내륙 지역은 말 병원이 분산되어 있고, 도와 같은 광역자치체를 통 털어 말 전문병원이 1개소도 없는 지역도 있다.

한국마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말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송, 진료 등 치료 행위를 중심으로 한 동물병원 간 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격자문의 경우 디지털 기술로 수의사간 원격진료를 진행해 말 의료 공백 최소화해 나간다. 말 수의사에게 적시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에서 환마가 발생했을 때 일반 수의사를 통해 원격의료로 시행하면서 전문소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마사회는 우선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등을 선정해 말 보건의료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사업 기관과 월 1회 정기 또는 수시 요청에 맞춰 운영 장비를 활용해 원격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한국마사회 사업장 내 거점 말병원(서울, 부산, 제주)의 의료협력 강화를 위한 원격협진을 시행한다.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저장 가능한 원격수술 협진 시스템을 구축해 정형외과, 산통 수술 건 등 협진이 필요한 수술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속도감 있게 말산업의 미래 밝히겠다”

김우남 신임 한국마사회 회장 취임식...임기 3년

김우남 제37대 한국마사회 회장이 4일 취임식을 갖고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우남 신임 마사회장은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비대면으로 시행된 취임식에서 온라인 발매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경영위기 극복,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과 내부 경영혁신, 말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다각화 등의 미래 경영계획을 밝혔다.

김 회장은 “우선 온라인 발매 도입과 고객 친화적 환경 구축에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사회장 직속의 ‘경마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속가능 경영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경영혁신과 공정한 조직 운영, 노사간 협력을 통해 경영의 안정성 확보와 미래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승마산업 등 말산업 다각화를 통한 미래산업으로의 경쟁력 강화”에도 중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훌륭한 농부가 땅을 키우는 마음으로 국민친화적 사업 발굴과 민간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말산업 육성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우남 회장은 제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제주 출신으로 제주도의원을 거쳐 제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았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김우남 제37대 한국마사회 회장이 4일 취임식에서 온라인 발매 법제화 등 경영 위기 극복과 경영 혁신, 다각화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은 향후 3년 간 한국마사회를 이끌게 된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재활힐링승마센터 과천 강습자 모집

한국마사회(회장 김우남)는 올해도 재활승마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 경마공원 내 위치한 재활힐링승마센터 과천점에서 2021년 1차 강습을 12명 규모로 진행한다. 10일부터 13일 오후 2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은 뇌병변과 지적장애인으로 한정했다. 강습은 2인 1개 반, 1인 1두로 실시하며 각 반별로 재활승마 코치를 비롯해 강습보조자들이 함께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보호자는 2인까지만 입장이 가능하고 강습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강습 대상자 및 보호자 모두 강습 전 발열체크, 출입명부 및 자가진단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국마사회, 말복지 가이드라인 개정

한국마사회는 2월 동물복지의 가치를 담아 말 복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말산업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 말복지 가이드라인은 2017년에 수립된 이후 한 차례 개정을 거쳤고, 이번에는 용어를 가다듬고 의무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규정했다. 말은 경마, 승마, 재활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말산업 종사자들도 용도별 말 관리법을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마사회는 말의 용도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말산업 종사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정말!
솔마!
와우!

입소문으로 효과입증!

남성의 자존심은 활력!!

腎 POWER GOLD

신 파워 골드

효과 없을 시 100% 환불

강하고
힘있게
3일은
끄떡없습니다!

신파워골드는 실험동물 등 유사 화학물질이 없습니다
(한국기능식품연구원·검사 성적서 입증)

덕동 바이오의 노허우로 직접 제배하는
생물귀뚜라미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최고수준!
유효히 높은 코디세틴 함량을 확인하세요

자연이 주는 활력의 원천!!!

철새의 힘의 원천 옥타코사놀과 페루의 산삼 마카뿌리에 침향, 녹용, 홍삼, 동충하초 외 활력에 좋은 자연의 원료들이 듬뿍 담긴 최상품입니다.

단 1%만을 위해 최상의 원료만을 듬뿍 담았습니다.

제이에스바이오

농협 301-0196-8042-51 예금주 : 제이에스바이오 안전형

상담문의 | 1599-5333